

바캉스 가니? 우린 아트캉스 간다

전일빌딩245 '아트 오아시스' 주말 버스킹·재즈·판소리 공연 작가 설치작품·전시도 눈길 달력·인센스 스틱·팔찌 만들기 시민 대상 강연·인문학 토크도

'전일245 展', '내 생애 첫 전시', '버스킹 인 더 나잇', '지역 교류음악회', '액션! 아트 놀이터', 인문학 토크...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채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찾아온다.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 '아트 오아시스'가 그것. '셰이킹, 전일!'을 주제로 7월 매주 토요일(오후 1시30분)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트를 매개로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함과 예술적 감성을 느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1층 로비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인 더 나잇'은 5주간 진행된다. 8일에는 색소포니스트 윤주승의 리사이틀이, 15일에는 여성 4중창 라움레 이디스와 어쿠스틱 밴드 페페의 공연이 진행된다. 22일에는 크로스오버 그룹 아르테 비바체의 무대가, 마지막 29일에는 팝페라 솔로 박원과 발라드 뮤지션 선진의 무대, 드림 온 체인지의 드림연주가 펼쳐진다. 1일에는 뮤지컬 퍼포먼스팀 바리칸토와 국악팀 보아너 등 무대가 진행된 바 있다.

광주와 타 지역 아티스트들의 이색적인 콜라보 무대인 '지역 교류음악회-우리' (8일)도 진행된다. 광주의 박수용 재즈 콰텟과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재즈울스타 밴드가 정통 재즈와 실험적인 즉흥 연주를 선보인다.

'브랜드공연-바라는 바다' (22일)에서는 한국 전통예술단체 황재은 예술단이 연흥무와 교방무 등의 전통무용, 선반 설치구조와 판소리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예술적 색깔을 입히는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일245 展'에서는 조은솔 작가의 설치작품 '틈' (19일까지 1층 로비)이 진행되며 22일부터는



지나해 열린 지역 교류음악회 모습.

<전일빌딩 245 제공>

김동기 작가의 설치작품 '바위섬'과 박아론 작가의 설치작품 '몽돌'이 시민들을 만난다. '틈'은 산업화 시대 급조된 집들이 모인 복잡한 동네를 통해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몽돌'은 한순간 떠오르는 잔상과도 같은 이미지의 조각들을 시각적 언어를 통해 재현한다.

재능 있는 시민과 신진 작가들의 첫 전시를 지원하는 '내 생애 첫 전시' (3층 시민갤러리)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미술 치유 프로젝트 '낭만화방'의 결과물인 '낭만삼촌' 전시를 3일까지 진행한다. 8일부터 17일까지는 '아트 오아시스 사진 콘테스트' 선정자를 위한 전시로 '당신만의 시선 전일빌딩245'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김지선 작가의 첫 개인전도 눈길을 끈다. 작가는 누구나 부유하는 감정들을 담아둬 곱하나를 마음에 지니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작품을 통해 담았다.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도 있다. '액션! 아트 놀이터'에서는 오일 파스텔 달력 만들기, 인센스 스틱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당근 케이크 만들기 등과 같은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그것. '명랑 가족아트놀이터 '하하호호'는 젠탱글 벽화 그리기와 LED 라이트 종이카드 만들기 등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증강현실 게임으로 몬스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투어-충추탕탕'과 추억의 레트로 오락을 즐기는 '전일 뽕뽕 오락실'도 마련돼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인문학 토크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인문학 토크-책 읽어주는 여자' (8일)는 화제의 SF소설 '휴먼의 근사치'의 저자 김나현 작가를 초청해 SF로 읽는 북콘서트다. '융복합 콘텐츠 강연 '전일245 클래스'' (15일)는 IT융합교육개발원과 함께 6주 보행 로봇을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형 강연이 펼쳐진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관하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3-0245.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를 비롯해 공연, 체험, 인문학 토크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며 "무더운 여름철 아트프로그램으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차이콥스키 콩쿠르 휩쓴 'K-클래식'

바이올린·첼로 기악부문 첫 우승...8명 입상 역대 최고 성적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결선에 진출한 한국인 연주자 8명이 모두 입상하고, 기악 부문에서 첫 우승자를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17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가 치러졌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는 195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창설된 65년 전통의 대회로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 벨기에의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뽑힌다.

클래식 애호가들은 이번 대회 역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참가자들의 경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며 새로운 스타 탄생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피아노 부문 결선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6만8천회를 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이 지난해 4월 회원 자격을 박탈해 위상에 타격을 받는 등 어수선한 대회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 연주자들은 그간 갖고 닦은 기량을 한껏 발휘하며 높게만 느껴지던 기악



김계희

이영은

손지훈

부문 우승의 벅을 넘는 성과를 냈다.

바이올린 부문에서는 김계희가 러시아 참가자 3명, 중국 참가자 2명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고, 첼로 부문에서는 러시아 참가자 3명, 한국 참가자 3명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이영은이 1위, 박상혁이 3위, 이동열이 5위를 차지했다.

성악 부문은 테너 최현수(1990년), 소프라노 서선영(2011년), 베이스 박종민(2011년)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한국이 강세를 보였던 부문으로 올해도 테너 손지훈이 1등을 차지했고, 베이스 정인호도 공동 2위로 영광을 안았다. /연합뉴스

'범죄도시3' 을 첫 1000만 관객 돌파

내년 후속편 개봉 최종 8편까지 구상

배우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사진>'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작 중 첫 1000만 영화다.

마동석이 '범죄도시' 시리즈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전작을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속편에서 어떤 새로운 재미를 선보일지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2일 영화계에 따르면 '범죄도시 3'의 후속편인 '범죄도시 4'는 이미 촬영을 마치고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다. 이 영화는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범죄도시 2'와 '범죄도시 3'는 이상용 감독이 연출했지만, '범죄도시 4'의 연출은 허명행 감독이 맡았다. 그는 이 시리즈 1~3편의 무술감독이기도 하다.

'범죄도시 4'는 마동석이 연기하는 괴력의 형사 마석도가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로, 배우 김무열과 이동휘가 마석도와 대결을 벌일 빌런으로 나선다.

김무열은 범죄 조직의 행동대장 '백장기' 역을 맡았고, 이동휘는 코인업계의 천재적인 경영자 '장동철'을 연기한다. '범죄도시 4'에서도 마석도



는 서울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로 나온다. 마석도의 상관 '장태수' (이범수)를 포함한 '범죄도시 3'의 광수대 멤버들은 4편에서도 마석도의 동료로 남는다. 여기에 배우 이주빈이 사이버수사팀 소속 '한지수' 역으로 합류한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8편까지 예정돼 있다. 범죄 액션 영화 프랜차이즈를 꾸민 마동석이 형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들을 토대로 8개의 이야기를 추려 '범죄도시' 시리즈를 구상했다. 현재 '범죄도시 4'가 완성 단계이고, '범죄도시 5'는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성공은 마석도와 같은 서민형 히어로에 대한 대중의 니즈(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드라마 '제1 공화국' 원로 탤런트 박규채 씨 별세

원로 탤런트 박규채 씨가 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영화계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후 1시 5분께 숨을 거뒀다. 그는 최근 폐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38년 강원도 속초 출생으로 고려대 농학과를 나온 고인은 국립극단에 들어가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했다. 대학 시절 농민들 앞에서 연극 공연을 한 것을 계기로 연기 지망생이 됐다고 한다.

이어 TV 탤런트로 방송에 데뷔한 고인은 재벌

의 성장 과정을 그린 '야망의 25시', '제1 공화국', '역새풀', '사랑과 야망', '3김 시대'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특히 1980년대 초 정치 드라마 '제1 공화국'에서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역새풀'에선 '오날날'이라는 유행어를 남기도 했다.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도 출연했다. 이 드라마에서 고인은 김 회장(최불암 분)의 친구인 면장 역을 맡았다.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 (1990)도 고



인 1997년 고인은 영화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돼 1년여간 재임했다. /연합뉴스

의 출연작이다.

고인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당시 야당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당하는 등 한때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말기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